

직접 요리사(레진수복)

김 덕 수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존과

접착 치의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기에 (2000년대 초반), 인접면 우식에 대한 치료는 amalgam과 gold inlay, 그리고 crown 수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접착제와 복합레진, sectional matrix의 발전에 힘입어 직접 수복으로 인접면 우식을 시행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아 삭제량의 감소, 내원 횟수의 단축이라는 장점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인접면 우식을 복합 레진으로 직접 수복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력 및 경력

-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 *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존과 인턴 및 레지던트
- * Oregon Health & Science University 방문교수
- * 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존학교실 교수
 - 대한치과보존학회 정책이사
 - 한국접착치의학회 총무이사